지속가능한 스위스 숙소.

럭셔리 VS 버젯

지속가능성 위해 숙소의 퀄리티나 편안함을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
나의 하룻밤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럭셔리한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하룻밤
저예산 숙소에서 기후 중립 실천

여기 소개하는 럭셔리 호텔은 호사스러움과 투숙객 전용 서비스 등 그 스타일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성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건축 자재에 근방에서 자란 나무 목재를 사용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 생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세련된 식음료 컨셉을 개발한다. 이런 고급 호텔은 책임감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한다. 혁신적인 시스템과 럭셔리한 로컬 자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투숙객들에게 특별한 호사를 선사한다.

반면, 지속가능성이 비싸거나 호화로울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 저예산 여행자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스위스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욱 혁신적인 방식으로 더욱 그린하게, 특별한 스위스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의식과 가성비를 염두에 둔 저예산 여행자들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숙소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럭셔리 숙소와 저예산 숙소를 하나씩 비교해 본다.

1. 체르마트 VS 블라텐-벨알프

1) 체르마트(Zermatt)의 체르보 마운틴 리조트(CERVO Mountain Resort)

지속가능한 숙소 인증 라벨인 “아이벡스 페어스테이(ibex fairstay)”를 획득한 최초의 발레(Valais) 주 호텔로, 제로 웨이스트 호텔이 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와 직원에 초점을 맞춘 철학을 실천한다. 럭셔리한 체르보는 이제 지속가능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덕분에 더욱 높아진 수준

체르마트 마을 중앙 위쪽에 자리한 스타일리쉬한 리조트로, 완벽을 기하는 럭셔리 스파가 더해지며 2020 년, 지속가능성 라벨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아이벡스 페어스테이”를 즉각 획득하게 되었다. 체르보의 생태적, 사회적 원칙, 협회를 이루어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 폐기 열에너지의 완전한 재사용, 지열 및 태양열에너지를 통한 95%의 에너지 수급은 체르보가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원칙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이 그 열쇠

인적 요인의 중요성이 여기보다 눈에 띄는 곳은 없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책임감 없이 지속가능성에 있어 포부 높은 직원이나 혁신적인 객실을 갖기란 힘들다. 스키장에 접한 호텔은 의욕적인 핵심 직원들 덕분에 오랫동안 그 철학을 실천해 왔다. 쓰고 남은 초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지역 재단을 지원하고, 체르마트 생수에서 얻는 수익의 10%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다.

공급 망 뒤의 원칙: 모든 것은 반경 150km 이내에서
그 어떤 호텔도 자생적이지 않다. 일관된 지속가능성 및 책임 활동은 공급자 선정에서 시작된다. 체르보는 총 공급 망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준다. 밀가루, 채소, 객실 가구 및 자재 모두가 가능한 반경 150km 이내에서 공수 된다. 이 거리 밖에 있다면, 지속가능한 기업이 첫 번째 선정 기준이다. 다음 목표는? 제로 웨이스트다!

2) 레카 홀리데이 빌리지(Reka Holiday Village) 블라텐-벨알프(Blatten-Belalp) 지점

난방 에너지는 완전 자체 생산하고, 전체 전기의 70%를 자체 공급하는 숙소다. 이 수치가 지속가능성 실천 방향을 말해준다.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융프라우(Jungfrau)-알레취(Aletsch)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복판에 있는 마을, 블라텐-벨알프는 레카의 장기 목표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개척자다. 탄소 중립이 바로, 이 휴양 리조트의 야심찬 목표다.

목표? 탄소 중립!
스위스 트래블 펀드(Swiss Travel Fund)가 운영하는 레카 홀리데이 빌리지는 스위스 전역 곳곳에 있는 숙소다.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숙소답게 목표를 높게 잡았다. 무거운 책임감, 포괄적 에너지 컨셉, 미래의 세대를 위한 자연 보호부터 더 높은 단계까지, 협회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휴가 업체 중 하나로 성장 중이다.

재생 에너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난방 에너지와 전기 공급 – 기후 친화성에 관련해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다. 그리고 이것이 레카가 집중하는 것이다. 레카 숙소에 필요한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70%가 이미 재생 에너지로 대체되었으며,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건물은 미래에도 난방 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수 있게 해준다. 예약 단계에서 투숙객들에게 기여받는 작은 기부금을 통해 투숙객들도 탄소 중립적인 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알프스 지역 내 자체 공급
에너지 등급에 있어 레카 홀리데이 빌리지는 발레(Valais) 주에 숨어 있는 블라텐-벨알프 리조트에서 떠오르는 신예 스타다. 2014 년에 오픈한 시설은 난방 에너지 전체를 자체 생산하고, 태양 및 지열 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기량의 70%를 생산한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숙박 시설이다. 알프스 지역에서도 자체 발전이 가능한 건축물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생인 셈이다.

2. 취리히 VS 인터라켄

1) 취리히(Zürich)의 돌더 그랜드(The Dolder Grand)

사회적이며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서 럭셔리란? 돌더 그랜드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환경 운영 시스템에 있어 국제 인증을 받은 것부터 꽃꽂이보다는 화분에 심은 식물을 활용하는 태도까지,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고, 시스템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식된다.

지속가능성 조치
지속가능성은 플라스틱 포장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취리히 언덕 위에 있는 돌더 그랜드는 장기적인 솔루션을 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한다. 어스체크(EarthCheck) 실버 인증을 받았는데, 세계 관광 산업에서 변화의 일부가 되어 더 큰 책임감을 인식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반면 디지털화를 더 많이 활용해 효율성을 도모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그 좋은 예로, 수상에 빛나는 미식 레스토랑이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다.

투명성에 기반한 포부, 이를 통한 완벽성
70 개의 지열선 덕분에 대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눈에 띄게 감축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다른 5 성급 호텔에 비교해 1/3 정도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게 되었다. 여기에 에너지 및 물 사용 정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성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는 참여
두 개의 사내 팀, D-포스(Force)와 D-임팩트(Impact)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안을 실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예로, "비건 수요일"에는 직원 식당에서 친환경 향토 음식이 제공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및 페트병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서 매년 약 50,000 개의 페트병이 절약되고 있다.

2) 인터라켄(Interlaken) 유스호스텔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역에 도착하면 유스호스텔이 바로 눈에 띈다. 현대적이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건물이 기차역 바로 옆에 있는데, 스위스에 있는 핵심 관광 허브 중 하나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장애 친화적인 객실, 건물 설계에 반영된 높은 수준의 생태 기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있어 좋은 모범이 되어주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숙박과 여행 체험을 독려하고 있다.

접근성과 포괄성 – 원칙
기록을 경신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 스위스 유스호스텔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간단치 않은 문제에 인간적인 면모를 부여했다. 저예산 여행자들이 퀄리티나 호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정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도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된 서비스를 가장 우선시한다.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것도 이 포괄적인 접근의 한 면모이다.

기후 보호는 투숙객의 손가락으로부터
인터라켄 유스호스텔은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기차역 바로 옆,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발치에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여정을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 투숙객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현지 및 국제 기후 보호 프로젝트에 기여함으로써 숙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경감할 수 있다.

세심한 그린 건축
2012 년 초에 문을 연 인터라켄 유스호스텔은 미네르기-P 규정에 맞게 지어진 최초의 스위스 숙박 업체 중 하나다. 미네르기 기준은 최고 수준의 품질과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초저에너지 건축으로, 생태 및 건강 건축 요건을 충족시킬 때 획득할 수 있는 인증 제도다. 에너지와 편안함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건물인 셈이다.

3. 그슈타트 VS 브루그

1) 그슈타트(Gstaad)의 더 알피나 그슈타트(The Alpina Gstaad)

수페리어 5 성급 호텔로 어중간한 법이 없다. 모두를 아우르는 개방적이고 진솔한 책무에 진심이다.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 이로써 전체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투숙객들의 개별적인 요구, 편안함, 럭셔리를 동반한 지속가능한 호텔 매니지먼트로 거듭났다.

평가, 인증, 투명한 소통
더 알피나 그슈타트는 투숙객의 편안함과 퀄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높은 스탠다드를 설정했다. 호텔의 지속가능성 규정은 전체적인 접근법을 반영한다. 어스체크(EarthCheck) 및 나우 포스 포 굿 얼라이이언스(NOW Force For Good Alliance)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사회 문화 요소,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지표를 활용해 탄소 발자국과 지속가능성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증을 받는다.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진행 상황 보고서를 나우 트랙&북(NOW Track&Book)에서 누구나, 언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지역성 및 재생 에너지
매일매일 호텔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인증과 액션 사이의 뚜렷한 관련성이 보인다. 근방에서 공수한 목재와 석재를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수공과 재활용 자재가 웅장한 호텔 건축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원산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해서라면 허투루 하는 법이 결코 없는 럭셔리 호텔이다. 수력발전 전기, 재생 연료로 목재를 사용하는 근방 마을에서 공급받는 지역난방, 센서로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 시스템, 수영장 온수를 위한 일부 열회수까지, 디 알피나 그슈타트가 지속가능성 규정을 실천하는 예이다.

2) 브루그 유스호스텔(Brugg Youth Hostel)
역사가 깃든 문화재에서 독특하고 극도로 친환경적인 숙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바로, 취리히 근교에 있는 브루그(Brugg)의 고성 안에 자리한 유스호스텔에서다. 까다로운 건축물조차도 지속가능성을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헌신적인 운영진과 아주 사소한 일도 환경적으로 대하는 태도 덕분이다.

역사가 살아나는 곳
로마인들과 합스부르크 왕가가 살았을 법한 고성에서 아주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슐뢰슬리 알텐부르크(Schlössli Altenburg)”라는 고성에 브루그 유스호스텔이 자리를 잡으면서다. 16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폭풍의 역사를 견딘 장본인이다. 어떻게 역사가 살아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문화재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들에게 그 문을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개인적 헌신의 승리
해자를 두른 요새에 차려진 유스호스텔은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배리어 프리 및 지속가능한 기준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숙소 인증 프로그램인 아이벡스 페어스테이(Ibex Fairstay) 금상을 수상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다. 지속가능성은 그저 인간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 태도다. 전원 여성으로 꾸려진 운영진이 수년째 환경 발자국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눈에 띄는 에너지 절감 정책
“자원 절약” 부문이 특히 눈에 띈다. 현저히 낮은 전력과 물 소비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절약에 좋은 LED 조명, 동작 센서, 공유 욕실은 사람들이 샤워할 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저렴한 숙박비를 통해 투숙객들이 최대한 재활용에 동참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데 동참하게 독려하고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